

창원시 빅트리 공공조형물의 공간 경험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Experience of the “Big Tree” Public Sculpture in Changwon City

주 저 자 : 노규량 (No, Gyu Rang)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s.2026.2.1001>

접수일 2026. 02. 18. / 심사완료일 2026. 02. 26. / 게재확정일 2026. 03. 02.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ig Tree public sculpture in Changwon from a public design perspective, moving beyond the simplistic binary judgment of its social controversy as either a success or failure. Specifically, while critical discourse formed around media coverage serves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it is not used as a direct evaluative measure; instead, it is reinterpreted in conjunction with an analysis of spatial experience.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reviewing prior domestic studies on public sculptures and public design to establish analytical criteria and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the “intentionally accessible symbolic facility.” Using this framework, Namsan Seoul Tower was employed as a comparative case, and field surveys and spatial experienc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Big Tree in Changwon. The results reveal that, despite being located within an urban park, the Big Tree exhibits limited connectivity with everyday urban pathways and demonstrates insufficient accumulation of spatial experience during the approach and post-arrival phases. This study highlights how such limitations in spatial experience interact with media framing, thereby stabilizing and reinforcing citizen percep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future public sculpture projects should consider both the spatial experience structure and perception design in tandem.

Keyword

Public sculpture(공공조형물), Spatial experience(공간 경험), Media framing(미디어 프레임িং)

요약

본 연구는 창원시 빅트리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단순한 성공·실패의 이분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상징 시설이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경험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판 담론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직접적인 평가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공간 경험 분석과 결합하여 재해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공공조형물 및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의도적 접근형 상징 시설’이라는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산서울타워를 비교 사례로 활용하고, 창원시 빅트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공간 경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빅트리는 도심 공원 내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도시 동선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은 접근 구조를 가지며, 원거리 인지 이후 접근 과정과 체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간 경험의 제약이 미디어 프레임িং과 상호작용하며 시민 인식을 고정·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밝히고, 향후 공공조형물 기획에서 공간 경험 구조와 인식 설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공공조형물과 공공디자인

- 2-1. 공공조형물의 공간적 조건과 디자인
- 2-2.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가치
- 2-3. 공공조형물과 미디어 담론의 상호작용

3. 공간 경험 구조 분석 및 구조화

- 3-1. 공간 경험 분석
- 3-2. 창원시 빅트리 공공조형물 분석
- 3-3. 공공조형물의 공간 경험 구조화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에서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이나 기념비적 상징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시민 경험을 조직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으로 인식된다. 한편, 도시 내 랜드마크는 관광 자원 확보와 도시 브랜드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공공적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며, 특정 공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형물 설치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은 매우 상반되며, 예산 문제, 시민 공감대 부족, 접근성 제한 등으로 인해 비판 담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미적 완성도나 정책적 판단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공조형물이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인자·체험되는지와 이러한 경험이 미디어 및 사회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랜드마크나 공공조형물이 설치 이후 도시환경과 시민의 일상적 경험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 대성공원 내에 설치된 빅트리 조형물은 대상공원 내 위치하며, 도심과의 직접적 연결이 제한된 구조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시각적 상징성을 확보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설치 이후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조형물의 공공적 기능과 공간적 타당성, 시민 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빅트리의 사례는 조형물의 공간적 위치와 접근성, 체류 유도 장치의 유무가 시민 경험과 사회적 평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주로 찬반 감정이나 언론 프레임의 반복에 그치고 있으며, 빅트리가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자·접근·체험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히 '성공한 랜드마크인가, 실패한 예산 낭비인가'라는 이분법적 판단만으로는 공공조형물의 본질적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빅트리 조형물을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형물이 도시 공간 내에서 갖는 상징적 기능과 접근 구조, 체류 및 반복 경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미디어 프레임과 결합하여 시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 논의가 단순한 미적 평가나 예산 논쟁을 넘어, 공간 경험과 사

회적 인식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며, 특히 빅트리 사례를 통해 공공디자인적 관점에서 공간 경험과 미디어 담론이 시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상징조형물이 도시 공간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디자인적·공간적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빅트리와 비교 사례인 남산서울타워를 통해 공간 경험 구조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셋째, 공간 경험의 제약이 미디어 프레임과 상호작용하며 시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조형물 기획과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공공조형물 및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의도적 접근형 상징 시설'이라는 개념적 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산서울타워를 비교 사례로 활용하고, 빅트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공간 경험 분석을 수행한다. 현장 조사는 사진 기록, 동선 관찰, 체류 시간 및 경험 밀도 분석을 포함하며, 분석 결과는 공공디자인 관점에서의 구조적 평가와 미디어 프레임 분석과 결합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한다.

2. 공공조형물과 공공디자인

2-1. 공공조형물의 공간적 조건과 디자인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조형적 대상이 아니라, 특정 장소의 역사·문화·사회적 맥락과 결합하여 장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Relph(1976)는 장소를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축적된 결과물¹⁾로 보았으며, Norberg-Schulz(1980)는 건축과 공간이 고유한 장소정신(Genius Loci)을 구현할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고 설명²⁾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조형물은 장소의 정체성과 서사를 시각적으로

1)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pp.43-45.

2) Norberg-Schulz, C. (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pp.18-20.

표상하는 매개체로 가능해야 하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의 오히려 공간의 이질성과 탈장소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조형물은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공공성을 핵심 전제로 한다. Habermas(1989)³⁾가 제시한 공론장의 개념에 따르면, 공공공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영역이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 개방성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접근성을 포함한다. Madanipour(2003)⁴⁾ 또한 도시 공공성은 공간의 소유 형태가 아니라 이용과 경험의 방식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공조형물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사유화된 인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위치와 형태로 계획되어야 한다.

한편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의 일부로서 시각적 연속성과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Cullen(1961)⁵⁾은 도시 경관을 연속적인 시각 경험의 축적으로 이해하였으며, Shirvani(1985)⁶⁾는 공공공간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도시경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특히 야간환경에서는 조명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조형물은 빛을 통해 강조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야간 경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디자인 측면에서 공공조형물은 상징성과 의미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 Miles(1997)⁷⁾는 공공미술이 도시의 사회적 기억과 정치적 의미를 담아내는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Zukin(1995)⁸⁾은 도시 공간에서 문화적 상징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일한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조형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원거리에서의 시각적 인지 가능성이다. Lynch(1960)⁹⁾는 도

시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요소로 '랜드마크(Landmark)'를 제시하며, 대상의 물리적 특성이 도시 전체의 가독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조형물은 도시 공간 속에서 눈에 띄고 상징적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모, 형태, 색상, 조명 등 다양한 시각적 장치가 활용된다. 둘째, 접근 동선과 경험의 연속성이다. Cullen(1961)¹⁰⁾은 보행자가 이동하며 마주하는 경관을 '연속적 시계(Serial Vision)'로 정의하고, 단절되지 않는 시각적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형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한 이동이 아닌 점진적 경험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방문자는 상징 시설에 대한 몰입과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체류 및 반복 경험의 가능성이다. Relph(1976)¹¹⁾는 물리적 공간이 인간의 의식과 결합될 때 비로소 '장소성(Placemaking)'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Whyte(1980)¹²⁾는 공공공간의 성공 여부가 시민들의 체류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조형물 주변 공간은 머무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징적 장소성이 강화되고 시민 경험이 축적된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조형물의 공간 경험을 단일한 물리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자-접근-체류-반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 기반한 공공조형물 공간 경험 분석 지표 도출 과정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공공조형물 공간 경험 분석 지표 도출 과정

분석 단계	분석 요소	도출 근거(선행연구)
원경 인지	가시성, 규모, 형태	Lynch(1960): 도시 가독성을 높이는 랜드마크의 물리적 특성 강조
접근	동선 명확성, 안내 체계	Cullen(1961): 보행 이동에 따른 연속적 시계(Serial Vision) 형성
체류	프로그램, 공간 장치	Whyte(1980): 체류 시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간 평가
반복	재방문 가능성	Relph(1976): 인간의 의식과 결합된 장소성(Placemaking) 형성

3)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MIT Press, pp.27-31.

4) Madanipour, A. (2003). Public and Private Spaces of the City. Routledge, pp.110-115.

5) Cullen, G. (1961). The Concise Townscape. Architectural Press, pp.9-11.

6) Shirvani, H. (1985). The Urban Design Process. Van Nostrand Reinhold, pp.7-9.

7) Miles, M. (1997). Art, Space and the City. Routledge, pp.58-62.

8) Zukin, S. (1995). The Cultures of Cities. Blackwell, pp.12-15.

9)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pp.78-83.

10) Cullen, G. (1961). The Concise Townscape. Architectural Press, pp.16-23.

11)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pp.43-45.

12) Whyte, W. H.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pp.16-23.

2-2.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가치

이지은 외1(2020)¹³⁾은 공공조형물은 공공공간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할 때 진정한 장소성(place identity)을 형성하며, 이는 장소와 조형물이 상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김선아 외 1(2025)¹⁴⁾은 국내 공공조형물을 대상으로 공간적 분포와 상징적 의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조형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고, 공공조형물이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을 시각화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함을 밝혔다.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조형적 장치가 아니라, 도시 공간 내에서 시민의 일상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 공공자산으로 기능한다. Lacy(1995)¹⁵⁾는 공공미술이 물리적 설치를 넘어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때 비로소 공공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조형물은 시각적 상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접근 가능성과 체류 경험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즉, 공공조형물의 가치는 설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맥락 속에서 시민이 인지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시각화하고 상징적 장소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Norberg-Schulz(1980)¹⁶⁾에 따르면 건축적 요소는 그 장소만이 가진 고유한 의미인 '장소의 혼(Genius Loci)'을 담아내어 시민들에게 정주 의식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은 조형물을 통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체감하며, 조형물 주변 공간은 시민들의 모임, 체험,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공공적 장소로 확장된다. 조형물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경험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도시 공간 속 상징 시설로서의 의미와 장소성을 부여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Whyte(1980)¹⁷⁾의 실증 연구에

서 드러나듯 설계 단계에서 접근성과 체류 유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가치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시민 인식과 미디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3. 공공조형물과 미디어 담론의 상호작용

공공조형물은 그 설치 목적과 형태가 공공공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언론과 비평가의 관점에서 다루지는 방식이 공공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조형물 관련 논쟁은 단순한 미적 평가를 넘어, 사회적 가치, 공공성, 권력 관계, 도시 정책과 같은 광범위한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논쟁은 종종 공공조형물이 도시 공간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기대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 여부와 그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비평가 언론의 상호작용은 공공조형물의 수용과 반응을 구조화(structure)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술 비평은 역사적으로 대중의 예술 인식과 미적 기준에 영향을 주어 왔으며, 이는 공공조형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론가와 언론 매체는 공공조형물의 의미, 미학,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해당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에 관한 공동의 틀을 설정한다. 이러한 비평 담론이 언론을 통해 확산될 때,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도시 장식물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논쟁의 장으로 부상한다.¹⁸⁾ 또한,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논쟁이 언론 보도에서 다뤄질 때, 미디어 프레임(media framing)은 공공의 해석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언론은 특정 관점을 강조하거나 논란의 쟁점을 구조화함으로써 공공조형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담론을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조형물이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이슈를 자극할 경우, 언론 보도는 단순한 설치 소식을 넘어 광범위한 비판·찬사 논쟁을 촉발하며 공공공간과 민주적 담론의 현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언론과 예술 비평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공공 담론(public discourse)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⁹⁾

13) 이지은, 이재규, 지하철역의 공공미술과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3), 2020, p.306.

14) 김선아, 이지인, 공공조형물의 공간적 분포와 상징적 의미 분석, 문화기술의 융합, 11(5), 2025, pp.758.

15) Lacy, S. (1995).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Bay Press, pp.171-185.

16) Norberg-Schulz, C. (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pp.18-20.

17) Whyte, W. H.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Conservation Foundation, pp.16-23.

18) Sigrid Røyseng, Public art debates as boundary strugg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8, 2022, p.584

공공조형물은 도시 공간 속에서 경험될 뿐만 아니라,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담론으로 재구성된다. Entman(1993)²⁰⁾에 따르면 미디어 프레임은 특정 사안의 일부를 강조하여 대중의 해석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빅트리 사례에서 언론 보도는 예산 사용, 행정 절차, 조형물의 미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비판 담론을 형성하였으며, 시민이 현장 경험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 선입견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미디어 프레임이 Whyte(1980)²¹⁾가 제시한 접근성과 체류 시설의 부재라는 구조적 설계 한계와 맞물려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공간 경험과 미디어 담론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의미와 평가를 구성한다. 결국 공공조형물 설계는 시각적 상징성 확보뿐만 아니라, 접근 동선, 체류 공간, 반복 경험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경험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구조적 설계가 결여될 경우 미디어 프레임은 조형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왜곡하거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빅트리 조형물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범위는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본격화된 2025년 7월부터 2025년 12월 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빅트리'를 키워드로 총 238건의 유효 기사를 추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연관어 분석 결과, '창원시', '전문가', '홍물논란' 등 디자인 비판 키워드와 함께 '임시개방', '기부채납', '외형개선', '시민의견', '맘스프리존' 등 운영 방식 및 공간 활용에 관



[그림 1]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한 빅트리 관련 뉴스 연관어 분석 결과(2025.07~12)

19) Ibid., p.585

20)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51-58.

21) Whyte, W. H.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Conservation Foundation.

한 키워드들이 최상위권에 도출되었다. 이는 초기 담론이 외형 비판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제 어떻게 이용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 경험적 담론으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그림 1 참조)

3. 공간 경험 구조 분석 및 구조화

남산서울타워는 서울 남산 정상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 상징물로, 공공조형물이 도시 공간 속에서 상징성과 시민 경험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랜드마크를 넘어, 접근 과정과 체류 경험, 반복 방문 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공디자인 사례라는 점에서 창원시 빅트리와의 비교 분석에 적합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분석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공공조형물 공간 경험 분석 기준

분석 단계	분석 요소	공공디자인적 의미
원경 인지	가시성, 규모, 형태	도시 내 상징 인식 형성
접근	동선 명확성, 안내 체계	상징 시설로의 의도적 이동 경험
체류	프로그램, 공간 장치	장소 경험의 밀도 형성
반복	재방문 가능성	상징성과 장소 기억의 축적

3-1. 공간 경험 분석

3-1-1. 원거리 인지와 상징성

남산서울타워는 서울 중심부 어디에서나 가시권에 들어오는 지형적 조건과 수직적 구조를 통해 강력한 원거리 인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도시를 이동하는 시민에게도 지속적으로 상징 이미지를 제공하며, 도시 전경 속에서 '보이는 상징'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야간조명과 색상의 변화는 시각적 주목도를 강화하여 상징성을 시간적으로 확장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빅트리는 원거리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시 구조와의 시각적 연계가 제한적이어서 상징성이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1-2. 접근 동선과 체류 구조

남산서울타워는 케이블카, 순환버스, 도보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통해 이동 과정 자체를 하나의 경험화로 유도한다. 특히 케이블카는 이동 행위를 상징적 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방문자가 도달 이전부터 장소의 의미

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 구조는 탑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대감과 장소 인식을 축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빅트리는 공원 내부의 일반적인 보행 동선에 의존하고 있으며, 접근 과정에서 상징 경험을 강화하는 공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체험 구조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동은 단순한 경로 선택으로 인식되며, 상징 시설로 향하고 있다는 감각은 약화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1-3. 체류 경험과 반복 방문 유도

남산서울타워는 전망대, 상업 시설, 전시 및 이벤트 공간 등을 통해 방문객이 일정 시간 체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체류 경험은 단발적 방문을 넘어 반복 방문을 가능하게 하며, 장소 기억과 상징성의 축적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빅트리는 조형물 자체에 경험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변 공간은 체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방문 경험의 밀도가 낮고, 반복 방문을 통한 장소성 형성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3-1-4. 미디어 프레이밍과 시민 인식

남산서울타워는 초기에 경관 훼손이나 상업화 논란을 촉발시켰으나, 다양한 접근·체류 경험이 축적되면서 시민들은 언론 담론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즉, 공간 경험의 풍부함은 미디어 프레이밍이 인식으로 고착되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판단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빅트리는 조형물 자체의 조형성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접근성과 체류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비판 담론이 시민 인식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확대적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간 설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물의 외형 문제와 예산 이슈 중심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공간 경험의 부족 등과 같은 사용자 경험치의 저하 문제도 시민들의 언론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영향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공조형물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3-1-5. 소결

남산서울타워는 원거리 인지, 접근 동선, 체류 및 반복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공디자인 사례로서 상징성과 시민 경험을 동시에 확보해 왔다고 분석된다. 반면 빅트리는 원거리 인지 이후의 경험 구조가 충분히 조직되지 못해 상징 경험의 축적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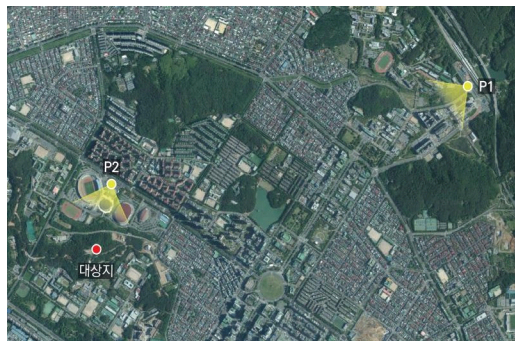
[표 3] 남산서울타워와 빅트리의 공간 경험 구조 비교

구분	남산서울타워	빅트리
원경 인지	도시 전역 가시	제한적 도시 축 가시
접근 구조	이동수단의 경험화	단일 보행 동선
접근 인지	안내·기대감 강화	안내 부족으로 인지 불확실
체류 장치	전망·상업·이벤트	내부 체류 중심
반복 경험	재방문 유도 구조	반복 경험 제한

3-2. 창원시 빅트리 공공조형물 분석

3-2-1. 분석의 전제와 방법

창원시 빅트리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조형적 결과물이 아니라, 도시 공공공간 속 상징 시설로서 어떻게 인지·접근·체험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도적 접근형 상징 시설이라는 개념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분석은 연구자가 수행한 현장 조사(사진 기록, 동선 관찰)를 바탕으로 하며, 다음 세 가지 분석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첫째, 원경에서의 시각적 인지 가능성(P1, P2), 둘째, 접근 동선과 경험의 연속성(P3~P6), 셋째, 도착 이후 체류 및 장소 경험의 밀도(P7, P8)이다.(그림 2,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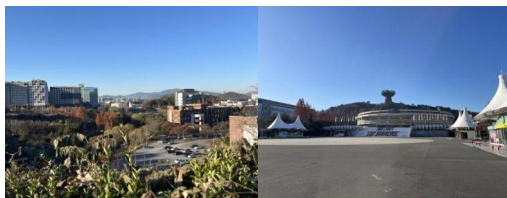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지(빅트리) 위치도 및 주요 조망점(P1, P2)
(출처: 카카오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 3] 대상지(빅트리) 위치도 및 주요 조망점(P3~P8)
(출처: 카카오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3-2-2. 원경 인지 단계

현장 조사 결과, 빅트리는 창원중앙역 인근과 창원 스포츠파크 일대 등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원경 인지가 가능하다. 이는 조형물의 수직적 규모와 형태적 특이성에 기인하며, 최소한의 도시 상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4, 5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인지는 주요 보행 동선이나 생활 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인지가 곧바로 접근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원 내부에 위치함으로써 조형물의 독립성은 강화되었으나, 일상적 도시 경험과의 연결성은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빅트리는 ‘보이지만 쉽게 다가가지 않는 상징’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림 4] 창원중앙역에서 보이는 빅트리(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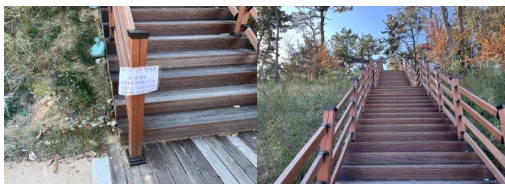
[그림 5] 창원스포츠 파크에서 보이는 빅트리(P2)

3-2-3. 접근 동선 분석

공원 진입 이후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접근 동선은 물리적으로는 단일 보행 경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경로를 따라 조형물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접근 과정에서 안내 표지나 방향 유도 장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는 이동 중 반복적으로 ‘이 경로가 조형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지’라는 인지적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동선은 기능적으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상징 시설로 향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되며, 이동 과정은 목적으로 수렴하는 상징적 접근 경험이 아니라 확인과 추정에 기반한 일상적 보행 행위로 인식된다. 이는 의도적 접근형 상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동선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조직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그림 6~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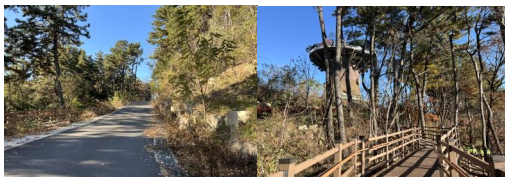


[그림 6] 빅트리 주차장(P3) [그림 7] 빅트리 접근 동선1 (P4)



[그림 8] 빅트리 접근동선2_안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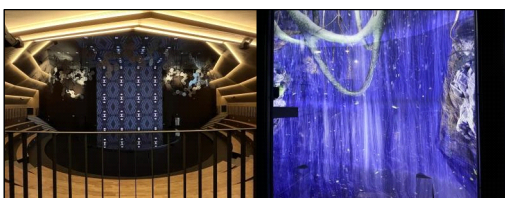
[그림 9] 빅트리 접근동선 3_초입 데크 계단



[그림 10] 빅트리 접근동선4 (P5) [그림 11] 빅트리 접근동선5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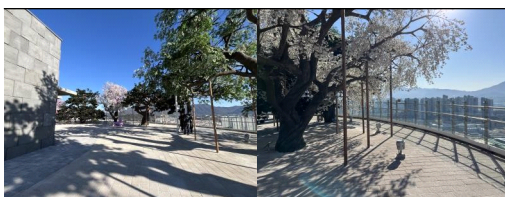
3-2-4. 도착 및 체류 단계

빅트리에 도달한 이후의 공간 구성은 명상관, 엘리베이터 이동 구간의 미디어아트, 전망대 등으로 단계화된 체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제공되는 미디어아트는 상승 이동을 시각적 경험으로 전환하며, 조형물 내부 체험의 집중도를 높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대부분 조형물 내부의 단선적 동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체험 이후 공간에 머물거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의 연계는 제한적이다. 그 결과 방문자는 전망대 도달 이후 비교적 짧은 체류를 거쳐 공간을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며, 조형물 외부 공간을 포함한 반복적 장소 경험으로 이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그림 12~17 참조)



[그림 12] 명상관

[그림 13] 엘리베이터 미디어아트



[그림 14] 전망대1

[그림 15] 전망대2



[그림 16] 전망 풍경1(P7) [그림 17] 전망 풍경2(P8)

즉, 빅트리는 상징 소비와 내부 체험의 완결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일상적 장소 경험이나 재방문을 유도하는 공간 기억으로 확장시키는 설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5. 종합 분석

종합하면, 빅트리는 원경 인지 차원에서는 상징성을 확보했으나, 접근 동선과 체류 경험의 조직이 미흡하여 공공적 경험의 축적이 제한된다. 이는 조형물의 미적 완성도 문제라기보다, 공간 구조와 경험 설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빅트리의 경우, 원거리에서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접근 동선과 체류 유도 장치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아 경험의 연속성과 반복 가능성이 제한된다. 이는 단순히 조형물의 미적 완성도나 상징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민 수용성 논란과 연결된다. 남산서울타워와 비교할 때, 후자는 케이블카, 순환버스, 전망대 동선 등 이동 과정 자체가 상징 경험의 일부로 설계되어 있어 접근과 체류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반면, 빅트리는 이러한 연계 구조가 미흡하여 시민 경험이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4] 빅트리 공간 경험 단계별 분석

분석 단계	관찰 내용	평가 요약
원경 인지	원거리 가시성 확보	상징성 부분 확보
접근	단일 동선, 안내 부족	인지적 불확실성 발생
체류	내부 체험 집중	외부 확장성 부족
반복	재방문 유인 약함	장소 기억 축적 제한

3-3. 공공조형물의 공간 경험 구조화

3-3-1. 상징 시설의 경험 구조에 대한 재개념화

빅트리의 공간 경험 구조는 언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판 담론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접근과 체류 경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주요 인식 창구로 활용하게 되며, 이는 부정적 프레임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즉, 미디어 프레임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된 평가가 아니라, 공간 경험의 밀도가 낮을수록 증폭되는 인식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는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의미가 공간설계와 담론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조형물을 조형적 산물이나 경관 요소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를 넘어, 도시 공간 속에서 단계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상징 구조로 재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도적 접근형 상징 시설(intentional destination-type symbolic structure)'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창원시 빅트리 사례를 통해 인지-접근-체류의 연속 구조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징성은 조형물의 물리적 규모나 형태적 특수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경험의 연쇄가 조직될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경에서의 가시성은 상징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접근 행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확신을 축적하는 매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도착 이후의 체험이 장소 기억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부 체험의 완결성 뿐 아니라 외부 공간과의 관계망 속에서 반복 가능한 경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상징'의 의미를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형성되는 경험적 구조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3-3-2. '의도적 접근형 상징 시설' 개념의 의의

본 연구가 제안하는 '의도적 접근형 상징 시설'은 일상적 동선 속에 위치한 통과형 상징물과 구별된다. 이는 방문자의 의도적 선택과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접근 과정 자체가 상징 경험의 일부가 되는 시설 유형을 지칭한다. 이 유형에서 핵심 변수는 첫째, 가시성(visibility)으로, 원거리에서의 시각적 인지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둘째, 전환 장치(transitional mediation)로, 인지를 접근 행위로 전환시키는 공간적·서사적 매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경험 밀도(experiential density)로, 도착 이후 체류 경험이 장소 기억으로 축적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가 핵심변수로 정리될 수 있다.

빅트리 사례에서는 가시성은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나, 전환 장치와 경험 밀도의 조직이 충분히 정교화되지 못한 경우로 해석된다. 이는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논란이 단순히 조형적 완성도나 예산 규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험 구조에 대한 고려 미흡에서도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공공조형

물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관적 구조의 한계가 다소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조형물의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형태·규모 중심에서 경험 구조의 조직성 수준으로 이동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공공공간 연구와 도시 상징 연구에 있어 분석 단위를 ‘대상(object)’에서 ‘경험 구조(structure of experience)’로 전환하는 이론적 제언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3-3. 공간 경험과 담론 형성의 상호작용 모델

나아가 공간 경험 구조와 미디어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하여 분석해본 결과, 공간 경험의 밀도가 낮을수록 이용자는 직접 경험에 기반한 해석을 축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외부 담론,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본 연구의 빅카인즈 분석 결과(238건), ‘홍물논란’과 같은 외부 프레임이 지배적이었음에도 ‘외형개선’이나 ‘맘스프리존’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 요구가 상존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Entman(1993)²²⁾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직접 경험의 밀도가 낮을수록 외부 프레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공간적 보상이 부재할 때 비판적 담론이 더욱 고착화됨을 시사한다.

이를 구조화하면 공간 경험의 조직성 약화 → 개인적 경험 축적의 부족 → 외부 담론 의존도 증가 → 프레임 고착 및 상징 의미의 외부화와 같은 인식 메커니즘이 도출된다. 이 모델은 공공조형물의 사회적 의미가 물리적 공간과 담론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즉, 미디어 프레이밍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평가가 아니라, 공간 경험의 구조적 조건과 결합하여 증폭되는 과정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공공공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논의되어 온 공간설계와 담론 분석을 통합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시각적 상징이 아니라, 도시 공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구성되는 경험의 장치이다. 상징성은 형태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접근-체류의 연속 구조 속에서 축적될 때 사회적 의미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빅트리 사례에서

나타난 ‘기부채납’이나 ‘세금낭비’ 프레임은 단순한 금전적 비판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적 공간 경험’이 제공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인지 부조화의 결과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공공조형물의 계획과 평가는 가시성과 접근성 사이의 전환 구조 설계, 이동 과정의 상징적 조직화, 체류 경험의 외부 확장 및 반복 가능성 확보, 공간 경험과 담론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분석 등과 같은 관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후적으로 해명하는 수준을 넘어, 상징 시설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험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창원시 빅트리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을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상징 시설이 도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접근되며 경험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 보도와 비판 담론을 직접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기보다, 공간 경험 분석과 결합하여 재해석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빅트리는 원경 인지 차원에서는 일정 수준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접근 과정과 체류 경험이 충분히 조직되지 않아 상징 경험이 일회적으로 소진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경험 구조의 제약은 시민이 조형물을 반복적으로 재해석할 기회를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미디어 프레이밍이 시민 인식에 강하게 작용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조형물 기획과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상징조형물 구축 사업은 조형물 자체의 형상이나 서사 이전에 접근 구조와 경험 동선 설계를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는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내부 체험의 완결성뿐 아니라 외부 공간과의 관계망 속에서 반복 가능한 경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조형물의 공공성은 가시성이 아니라 체류와 사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재인식하여 평가 기준을 형태·규모 중심에서 경험 구조의 조직성 수준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디어 담론은 사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초기 공간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환경 조건으로 이해하여 경험 구조를 전

22)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51-58.

략적 설계의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창원시 빅트리 사례를 통해 공공조형물 논의가 미적 평가나 행정 비판을 넘어, 공간 경험과 사회적 인식 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공공디자인 담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빅트리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와 상징성 평가, 방문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 미디어 노출이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 경험과 사회적 인식 구조 간의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선아, 이지인, 공공조형물의 공간적 분포와 상징적 의미 분석, 문화기술의 융합, 11(5), 2025
2. 이지은, 이재규, 지하철역의 공공미술과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3), 2020
3. Cullen, G., 「The Concise Townscape」, Architectural Press, 1961
4. Entman, R. M.,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1993
5.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MIT Press, 1989
6. Lacy, S.,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Bay Press, 1995
7.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8. Madanipour, A., 「Public and Private Spaces of the City」, Routledge, 2003
9. Miles, M., 「Art, Space and the City」, Routledge, 1997
10. Norberg-Schulz, C.,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1980
11. Relph, E.,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12. Sigrid Røyseng, Public art debates as boundary strugg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8, 2022
13. Shirvani, H., 「The Urban Design Process」, Van Nostrand Reinhold, 1985
14. Whyte, W. H.,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Conservation Foundation, 1980
15. Zukin, S., 「The Cultures of Cities」, Blackwell, 1995